

강기정 광주시장 “AI·미래차양날개로 첨단기술 선도”

“혁신기업 태어나고 성장하는 도시·창의인재 모이는 도시 조성”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복합쇼핑몰 유치 등 지역 최대 현안 물꼬
 ‘불통’ 지적에 “잘못 씌워진 프레임…생각과 가치관의 차이일 뿐”

강기정 광주시장은 25일 “인공지능(AI)과 미래차를 양 날개로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도시, 혁신기업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도시, 창의인재가 모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광주는 미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하는 시기다. AI와 미래차는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과 복합쇼핑몰 유치 등 지역 최대 현안에 대해서 “물꼬를 댔다”고 평가했다. 일각의 ‘불통’ 지적에 대해서 “잘못 씌워진 프레임으로,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다음은 강 시장과의 일문일답.

-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기치로 지난해 7월 1일 민선 8기 강기정호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을 맞았다. 취임 첫 해 소회는.

“취임 일성으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관습적 의전도 벗어던졌다. 현안 앞 도열이 사라졌다. 행사장 이동 중 부사장 브리핑도 없었다. ‘시장 챙기기’보다 행사의 주인공인 시민을 보다 꼼꼼히 챙겨달라는 의미였다. 단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 노력했다. 위기 때마다 시민들이 함께 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시민들에게 감사하다.”

- “이제는 됩니다”라며 광주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체 평가를 내린다면.

“난제 중의 난제로 꼽혔던 광주군공항이전사업에 물꼬를 댔다. 안전성 논란을 빚었던 지산IC 진출로 대안 제시,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등의 성과도 이뤘다. 지역 관광·유통산업에 큰 변화의 물결을 불러 올 복합쇼핑몰 유치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빛그린산단 지정 이후 14년 만에 신규 국가산단(미래차산단)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복지분야 공약 1호로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선보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수돗물 단수 위기까지 불러왔던 역대급 가뭄 극복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 ‘5+1’을 비롯한 주요 현안이 빠르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방향을 잡는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열정,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없었다면 힘들었을 일들이다. 한 건에서는 ‘운 좋은 시장’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단순한 운이 아니라 광주가 지난 시간 동안 축적해 온 것이며, 또한 간절함·집중력·집단지성의 결과이기도 하다. 운도 간절함과 함께 잡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함께 할 수 있다.”

- 지난해 1년 가장 힘들었던 일과 기억에 남는 일은.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가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군공항이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깊은 고민 속 결정 과정이 매우 힘들었던 일은 이태원 참사 분향소 명칭 변경이었다. 고민이 컸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한 번 더 생각한 결과였다.”

- 각종 성과에도 불구하고 표지처럼 따라붙었던 ‘불통시장’이라는 외부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소통 부재·불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 씌워진 프레임이다. 논의와 토론·설명 등 다양한 형식으로 소통의 과정을 거쳤다.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를 불통이라고 말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월요대화·정책소풍·간부 티타임 등 공직자·시민들과 함께 다양하고 색깔있는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다.”

- 광주의 ‘그랜드 비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AI와 미래차는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의 양날개가 될 것이다.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을 구체화하는 한편 소부품(소재·부품·장비)에서부터 자율주행까지 미래차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광주가 가장 먼저 만들어갈 것이다.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타 추진과 광주산업의 근간인 자동차산업이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과 고도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술개발·실증사업 등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 ‘그랜드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 양성이 중요한 것 같다.

“그렇다. 최고의 경쟁력은 인재양성이다. 탄탄한 인재양성 사다리 구축에 힘쓰겠다. 인공지능·미래모빌리티·반도체 분야 등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 육성과 인재양성 간 연결고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과 대학·청년 모두가 생존을 넘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광주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인재가 없다’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인재양성에 힘 쓰겠다. 총총한 인재육성 사다리, 아등에서 전문인력 대상 교육까지 광주가 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150만 광주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폭설·가뭄 등 위기 때마다 시민들이 함께 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이제부터 진짜 광주의 변화를 손에 잡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 이 길에도 결국 시민들이 함께 응원해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동참해주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 공직자들과 나는 시민 신뢰에 기반, 광주 변화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이슬비기자

김영록 전남지사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와 경쟁”



김영록 전남지사는 25일 “지난 5년 간 전남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서울만 바라보지 않고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와 경쟁하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민선 8기 2년 차 전남 도정도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완성에 온힘 쏟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전남은 이제 농도(農道)·수산도(水産道)에서 한 발짝 나아가 조선·철강 등 전통산업과 우주·항공,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첨단산업, 해양관광·재생에너지·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기로에 서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 지난해 1년간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민선 8기 취임 1년 인터뷰서 탈지역화·세계와의 경쟁 강조
 “무한한 가능성·잠재력 확인…전남 대도약에 온힘 쏟겠다”

“해묵은 지역과제를 해결했다. 대표적 성과로 전남도민의 20년 연원이 깃든 속원사업인 흑산공항이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공동 유치 추진,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출연 갈등 해결, 화순 동북면 관리권 조정 등 운명공동체인 광주와 상생은 물론 미래 공동 번영의 기틀을 다졌다. 여기에 부산·경남과도 남해안 발전에 뜻을 모으기로 손을 맞잡는 등 행정구역 넘어서 광역행정에서 탄력이 붙었다.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확대 등 100건이 넘는 신규사업 유치로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성장기반도 확실히 다졌다.”

- 전남 균형발전을 위한 서남권 미래비전 프로젝트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는.

“동부권과 더불어 전남의 권역별 고른 성장을 위해 5월 말 ‘서남권발전 신(新) 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대표사업인 광주·영암 간 아우토반(초고속도로) 건설은 20대 대선 당시 지역 공약으로 호남의 새로운 대동맥이자, 판을 뒤흔들 획기적 사업이다. 광주와 영암을 아우토반으로 연결하고 영암에서 목포 삼척도까지 해상 교량을 놓을 계획이다.

목포 구도심에서 하당·남약·오룡 구간은 차세대 친환경 대중교통인 ‘전남형 트램’ 설치도 준비 중이다. 인공지능(AI)·자율주행·슈퍼카 테스트베드 역할과 F1경기장 활성화로 독일 아우토반처럼 목포와 영암 등 서남권 일대를 전 세계인이 찾는 대표 관광자원으로 키우겠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전남형 스마트시티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서남해안 광역관광 거점단지도 발돋움시킬 생각이다.”

- 우주항공 클러스터 지정 등 전남 미래 첨단산업 추진 성과는.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이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와 우주발사체 특화산단 후보지로 확정됐고, 순천 울촌산단엔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을 유치함으로써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완성했다. 또 반도체 불모지였던 전남이 불과 1년 만에 차세대 반도체산업 국가 공모사업에 4개(1133억원)가 선정됐고, 35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으로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해 대한민국 첨단 전략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는 발판을 놓았다.”

- 민선 8기 차별화된 전남도민의 민생대책과 성과가 있다면.

“지난해 난방비·면세유 급등, 고물가,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시름하는 도민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해 근심과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다고 본다. 3차례 1860억원 규모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신경 썼다.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버스·택시비 등 공공요금 6종을 동결했고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을 지원해 영세 기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렸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농업인 19만명(830억원)에 드려던 면세유 상승분 지원 시책은 전국 농업인(100만명)을 대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 ‘수산 1번지’ 전남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책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민의 우려와 걱정에 충분히 공감한다. 도는 원전오염수 방류를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우리 의사와 달리 방류가 강행될 경우 해양수산부 대응계획에 따라 전담조직을 꾸려 방류 전·중·후 단계별 대응 계획을 세워 발 빠르게 대응해가겠다. 다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위험성이 과도하게 강조되거나 국민적 공포심을 조장하는 일은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수산물 소비위축을 줄이기 위해 안전성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해 1년 동안 가장 아쉬운 점은.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다. 지난해 15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서남권 발전을 위해 도민께 드리는 답화문’ 발표 전, 며칠간 불면의 밤을 보냈다. 얼마 전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통과됐고, 원대한 서남권 비전도 제시한 만큼 곧 무안군이 서남권 발전을 위해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에 대해 대응적 차원에서 수용해 줄 것으로 믿는다.”

- 취임 1년을 맞아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민선 8기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취임 후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수행지지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안겨준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선 7기부터 지난 5년간 전남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선 8기 새로운 슬로건인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 전남은 이제 미래 첨단산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기로에 서 있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